

루돌프 마이클 쉰들러의 건축언어를 기초로 한 가구 디자인의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Rudolph M. Schindler's Furniture Design based on his Architectural Language

이홍규* / Lee, Hong-Kyu

박진호** / Park, Jin-Ho

Abstract

Rudolph Michael Schindler(1887-1953)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pioneering modern architects who pursued not merely stylistic expression but a true embodiment for the human life. His furniture design is particularly noteworthy in Schindler's building. He designed numerous furniture designs where it serves as a core principal of his interior design of each building. Nevertheless, despite his architectural accomplishments, his furniture design has less been discussed.

This research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no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Schindler's furniture designs based on his architectural language. For an in depth study of Schindler's furniture, this study reconstructs the archival material by analyzing drawings and by fabricating scaled model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Schindler's furniture.

To do so, it concentrates on two things: On the one hand,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that have to do with simple geometry, human proportion, the use of material and visual technique; on the other hand, different furniture types. This article concludes by describing Schindler's furniture design that has grown from his unique design approach and its underlying formal and spatial design principles.

키워드 : 쉰들러, 가구 디자인, 건축언어

Keywords : Schindler, Furniture design, Architectural langua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루돌프 마이클 쉰들러(Rudolph Michael Schindler)는 창조적인 모던 건축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당시에는 실험적이고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작품을 그의 일생동안 해왔다. 그렇지만 그의 일생의 건축 경력을 살펴볼 때, 그가 어떤 사조나 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언제나 홀로 자신의 디자인 언어를 개발, 자신만의 독특한 창조적인 조형미를 잘 표현하고자 하는 작가의 한 사람이다. 필립 존슨과의 1932년 편지에서 쉰들러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스타일리스트도 아니고 기능주의자도 아니고 어떤 사조나 운동에 가담

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의 각 작품에는 특유의 건축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어떤 사조 혹은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집이 진정으로 집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즉 이것은 쉰들러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것을 자신의 내면 속에서 걸러내어 건축적으로 발전시키는 개인 양식을 심화시켜 온 작가라는 것이다.

쉰들러의 건축은 현대 산타모니카 스쿨의 1세대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주택 겸 작업실로 쓰이던 킹스 로드 주택(Kings Road House)은 로스앤젤레스 지역 건축메카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의 건축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주택 내부 디자인에서 중요한 공간 구성 요소인 가구 디자인에 관하여는 별로 알려진 것도 없고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쉰들러의 가구 디자인은 그의 건축 디자인만큼이나 모더니즘의 간결한 건축언어를 기초로 합리적이면서 독특한 형태를 갖는 가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 정회원, 대림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Ph.D.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Ph.D.

실내 공간에 자신만의 독특한 형태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쇤들러의 건축언어를 통하여 그의 가구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형태적, 기능적 관점에서 분석된 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자신의 독특한 조형미의 핵심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 바바라 대학 (UC Santa Barbara) 내에 소재한 루돌프 쇤들러 박물관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쇤들러 자료실의 관장인 커트 헬프리치(Kurt G. F. Helfrich)와 직접 연락하여 관련 자료를 구입하였다.¹⁾ 그 다음으로 쇤들러 가구의 관련 문헌조사가 이루어졌다. 분석의 대상이 된 가구들은 쇤들러의 가구 중 책과 정기간행물에 소개된 것 중 잘 알려져 있는 몇 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들 작품과 관련된 도면과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 자료들을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 작업의 과정으로서 첫째, 쇤들러의 원도(原圖), 스케치와 관련 자료들의 면밀한 고증 작업을 하였으며 둘째, 이를 근거로 정확한 치수 도면을 재구성하며 셋째, 실지 쇤들러의 몇 주택을 방문 및 답사하여 각 가구의 활용도 및 효용성을 직접 관찰해 보았다. 그리고 사진촬영이 허용된 몇 주택에서 수집 가능한 시각 자료를 확보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쇤들러 가구를 그의 건축언어를 통해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작업은 가구 작품들의 피상적 이해 수준을 넘어 쇤들러의 건축 개념과 이론을 통한 건축 언어가 어떻게 가구 디자인에 적용 발전되었으며 나아가 그런 생각과 전략이 어떻게 동시대의 디자인에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까라는 해답을 찾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쇤들러의 건축 언어

쇤들러는 1887년 9월 10일 빈(Wien)에서 출생하여 1953년 8월 22일 로스엔젤레스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오토 바그너(Otto Wagner) 밑에서 건축을 공부하였고, 아돌프 로스(Adolf Loos)의 영향도 받았다. 빈에서부터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 L. Wright)의 작품에 매료된 쇤들러는 시카고의 오펜하이머, 스텐, 리커트(Ottenheimer, Stern and Reichert)의 사무실에서 라이트와 함께 일하였다. 그 후 쇤들러는 로스엔젤레스에 정착하여

작품 활동을 하였다.

대부분의 작품은 로스엔젤레스 근교에 세워졌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푸에블라 리베라 아파트, 팩하드 주택, 로벨 주택, 하우 주택, 울프 주택, 엘리엇 주택 등이 있으며 쇤들러의 유기적 건축 개념이 잘 표현된 작품들이다. 쇤들러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근대 조형예술의 맥락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건축언어로 발전시켰으며²⁾,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단순 기하학적 구성

쇤들러는 흥미로우나 단순한 디자인은 가장 어렵고 만들기 힘들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킹스 로드 주택(Kings Road)을 살펴보면, 주택의 기본구도는 정사각형의 3개의 매스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현관문을 가진 세 개의 포치(porch)가 내·외부 공간의 상호 연결을 위한 매개공간의 역할을 하면서, 회전 대칭의 원리로 중첩시킨 형태를 이루고 있다. 쇤들러의 건축은 사각형이란 기하학적 형태를 구조적, 공간적으로 극히 단순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³⁾

(2) 모듈 체계

건축가는 디자인을 함에 있어 크기의 조화와 리듬을 주기 위해 충분한 크기의 자신만의 단위를 가져야 한다고 쇤들러는 말한다. 이를 위해 모듈 체계가 필요하며 이것은 쇤들러의 공간 건축개념에서 필요불가결한 요소이기도 하다.⁴⁾

(3) 재료의 사용

쇤들러는 공간 형태의 본질은 자연스러운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료의 정직한 사용을 강조한다. 즉 지역과 주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풍토에 맞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⁵⁾

(4) 시각적 기법

로스의 영향을 많이 받은 쇤들러는 각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형태나 색깔을 다른 재료의 색깔이나 형태로 모방·변형시키기 보다는 자연 재료의 본성을 건축물에 그대로 반영하는 시각적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건축의 예술적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강조한다.⁶⁾

2)최근에는 쇤들러의 작품의 중요성이 건축계에 점차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한스 홀라인, 구스타프 페이힐, 찰스 무어, 제이콥 바케마, 브루노 제비, 프랭크 이스라엘, 마이클 로턴디 등도 쇤들러의 작품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Noever, Peter. MAK Center for Art and Architecture: R. M. Schindler, Prestel Verlag, Munich, 1995, pp. 26-27.

3)Park, J-H, Analysis and Synthesis in Architectural Designs : A Study in Symmetry, Nexus Network Journal, vol 3, no. 1, 2001, p. 88.

4)Schindler, R. M., 'Reference Frames in Space', Architect and Engineer, San Francisco 165, 1946

5)Schindler, R. M., Answer to questionnaire from the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DC, UCSB, 1949. 이 글을 출판되어지지 않았고 쇤들러 자료실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6)Schindler, R. M., 'Visual Technique', Los Angeles, R. M. Schindler Papers. The Architectural Drawing Collection, The University Art

1)UC Santa Barbara대학 내의 박물관에는 "Architecture and Design Collection"이라는 곳에 쇤들러의 모든 관련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쇤들러의 편지와 서류 일부가 산타모니카의 게티 센터(Getty Center)에 소장되어 있다.

3. 쇠들러 가구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

쇠들러의 건축 언어는 단순 기하학적 구성, 모듈 체계, 재료의 사용과 시각적 기법으로 대표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쇠들러의 가구 디자인은 그의 건축 언어를 바탕으로 크게 단순 기하학적 구성, 인체비례, 재료의 사용과 시각적 기법의 네 가지 범주로 특징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단순 기하학적 구성(Simply Geome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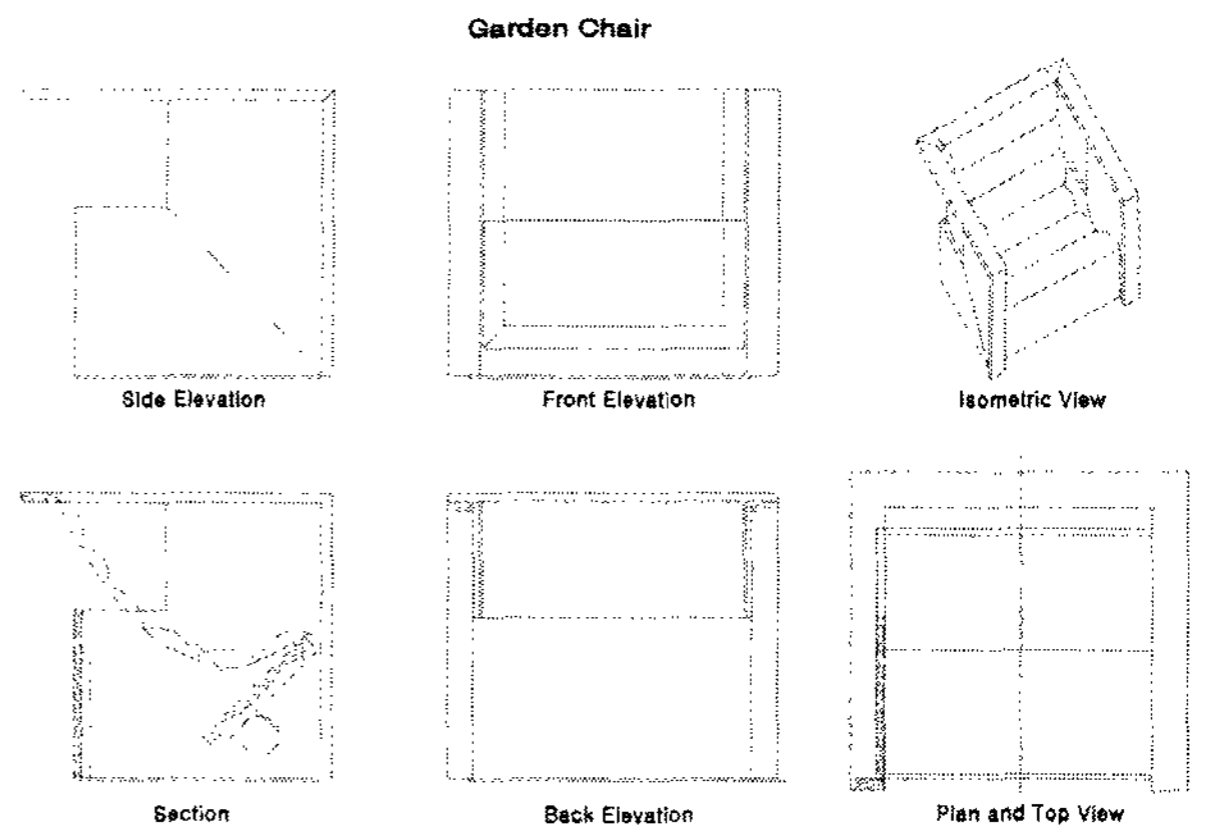
아르누보 양식(Art Nouveau) 등에서 사용되는 원이나 곡선보다는 쇠들러는 가구와 내부 디자인이 일체화된 쇠들러식 접근 방식과 더불어 단순 기하학적 형태를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직선적인 형태의 디자인은 이미 영국의 수공예 운동가 특히 베일리 스콧(M. H. Ballie Scott)이나 찰스 맥킨토쉬(C. R. Mackintosh)의 디자인에서 내부 공간 구성 원리로 중요시 되었다. 또한 그의 건축 디자인처럼 장식적 요소가 없는 가구는 로스나 고트프리트 켐퍼(Gottfried Semper)의 영향이다.⁷⁾ 또한, 19세기 초 찰스 이스트레이크(Charles Eastlake)의 여러 글에서 강조한 장식적 요소가 없는 단순 가구 디자인 개념 또한 쇠들러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쇠들러의 기하학적 단순성, 직선적 형태, 자연마감 오크나무 등의 사용은, 보다 직접적으로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프래리 건축가들(Prairie architects) 특히 구스타프 스틱리(Gustav Stickley)와 같은 미국 수공예 운동가의 영향이 더 크다.

단순 기하학적 가구 중, 박스 의자는 쇠들러가 초기에 특히 선호하던 디자인으로 킹스 로드 주택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후 좌판 부위와 등받이에 따라 여러 형태로 발전되었다. 특징적으로 가구의 구조 뼈대는 거친 캘리포니아 산 붉은 목재를 사용하였으나 좌판 및 등받이는 무명 느낌의 캔버스 천으로 부드럽게 만들어지거나, 혹은 편안하게 몸을 기대 수 있게 캔버스 천으로 된 슬립 커브 안에 갈비뼈 형태로 두툼하게 쿠션을 댄 의자가 많이 쓰였다. <그림 1>

나무판으로 좌판 및 등받이를 댄 의자도 있으나 쇠들러 박스 의자에 있어 나무판으로 등받이를 만든 의자는 울프 주택(Wolfe House)의 의자를 제외하곤 드문 경우이다. 유사한 디자인이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의자 등에서 발견되나 대부분 가죽을 사용하였다. 1865년에 디자인된 모리스의 의자

는 가죽 시트에 등과 손잡이 부위가 이동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라이트 또한 1898년경부터 이와 유사한 의자 디자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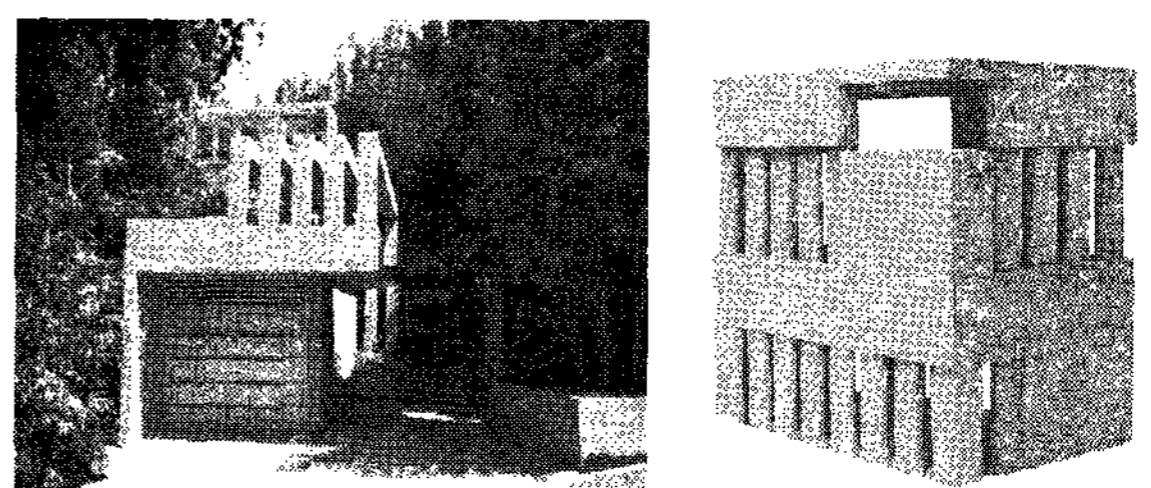


<그림 1> 등받이가 있는 경우의 정원용의자

쇠들러의 이러한 단순 기하학적 가구 디자인은 동시대의 데 스틸(de Stijl) 디자이너인 리트벨트(G. Rietvelt)와 견줄만하다. 쇠들러의 디자인이 볼륨적인 형태의 조합이라면 리트벨트의 가구는 선형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박스 형태의 3D 볼륨 디자인은 아마도 로스의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박스 디자인은 중세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으나 쇠들러의 디자인이 나름대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이러한 박스 의자 디자인을 나름대로 재해석, 자신의 디자인으로 발전시켰음에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단순 기하학 형태는 의자, 탁자, 책장 디자인뿐 아니라 문패, 전축박스, 휴지통, 조명기구, 나아가 실내 바닥 마루 깔개인 리놀륨(linoleum) 패턴 디자인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세부 디자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이들 디자인은 쇠들러 건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건물 디자인과 닮아 있다.

러빈(Levin) 주택의 휴지통의 경우 상단 모서리 두 곳에 휴지(대부분은 종이)를 버릴 수 있는 큰 구멍이 나 있고 주변은 쓰다 남은 나무를 반복된 단순 리듬으로 일렬로 나열하고 그 위를 지그재그 형으로 합판을 대었다. 이러한 러빈 주택의 휴지통은 그 디자인이 엘리엇 주택(Elliot House)의 차고를 포함한 주 출입구 부분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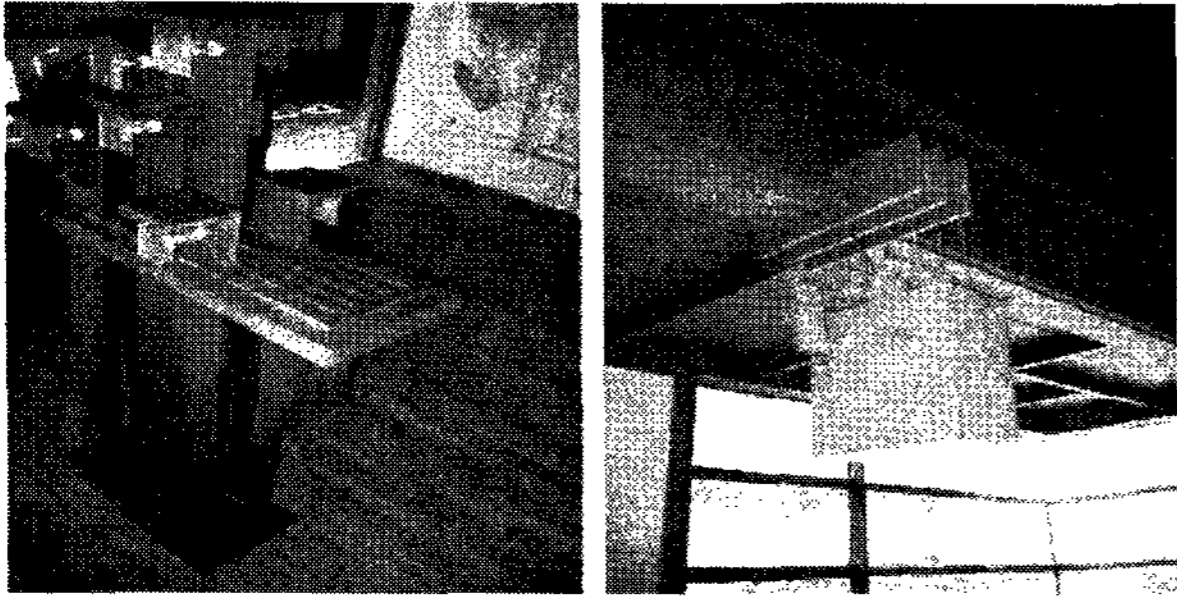


<그림 2> 엘리엇 주택의 차고를 포함한 주 출입구 부분과 러빈(Levin) 주택의 휴지통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952 이 글도 쇠들러가 발표하지 않은 글로 그의 사후에 오거스트 사니츠의 책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Sarnitz, A., *R. M. Schindler-Architect*, New York, Rizzoli, 1986, pp.6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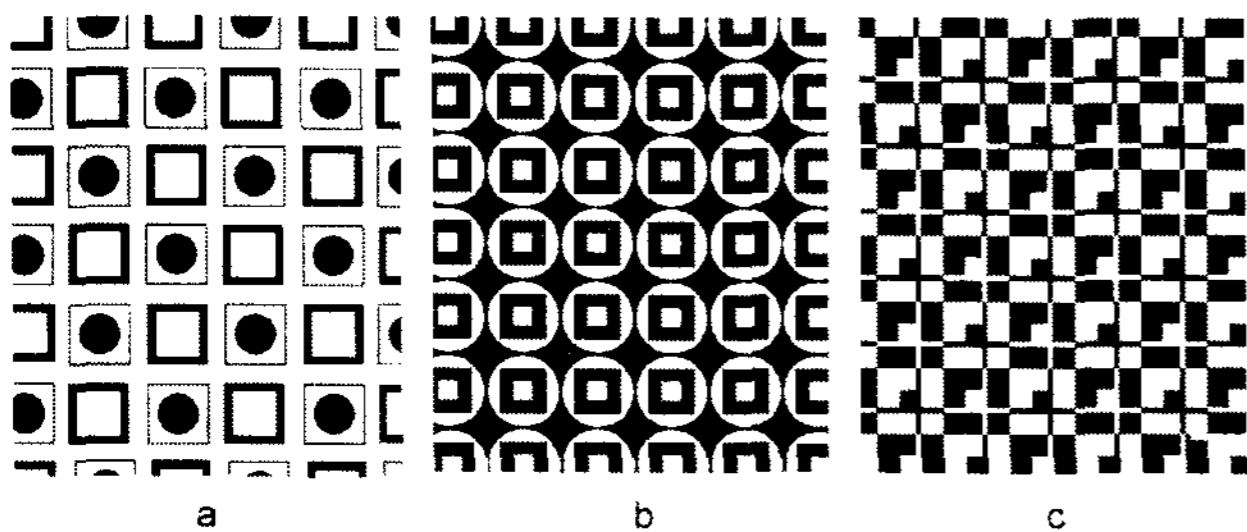
7)Adolf Loos의 글 Ornament and Crime과 Gottfried Semper의 저서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를 참조

유사한 디자인은 하우 주택(How House)의 조명 기기나 주택의 변지수 도안, 그리고 직물의 패턴 디자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그림 3> 이러한 단순 기하학적 접근 방식은 쉰들러 디자인의 초기 작품에서부터 명명백백하다.



<그림 3> 하우주택(How House)의 조명기기

하우 주택(How House)의 리놀륨 디자인은 특이할 만하다. 쉰들러가 리놀륨을 디자인 했다는 사실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그 디자인에 나타나는 패턴 디자인에 주목할 만하다. 바닥 리놀륨 패턴은 예로부터 디자인되었다. 쉰들러 패턴의 기하학적 특이성을 살펴보기 위해 여기서 세 바닥패턴 디자인을 예로 들어보자. 하나는 판테온(Pantheon)의 대리석 바닥패턴이고, 두 번째는 피터 베렌스(Peter Behrens)의 바닥패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쉰들러의 패턴이다. 이들에겐 어떤 기하학적 차이점이 있을까? 판테온의 바닥패턴 디자인은 아마도 당시의 플라토닉하고 유클리드 기하학적 관계, 즉 정사각형 배가(倍加), 정사각형과 내접시킨 원과의 관계가 잘 연출된 디자인이다. 그리고 정사각형과 원의 교차 배치는 강한 시각적 대각구도를 이끌어 낸다. 피터 베렌스의 리놀륨 디자인 또한 원과 사각형의 조합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판테온의 바닥패턴과 비교해 볼 때, 이 디자인은 리듬감이 없는 단순패턴의 반복적으로 다소 미숙함 보이고 있다. 반면 쉰들러는 대각선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바닥의 배경과 전면 무늬를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바닥 디자인 패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하였다. L-형태는 건물의 평면 디자인을 따랐고 일련의 흑백 사각형을 대각선을 기준으로 리듬감 있게 배치하였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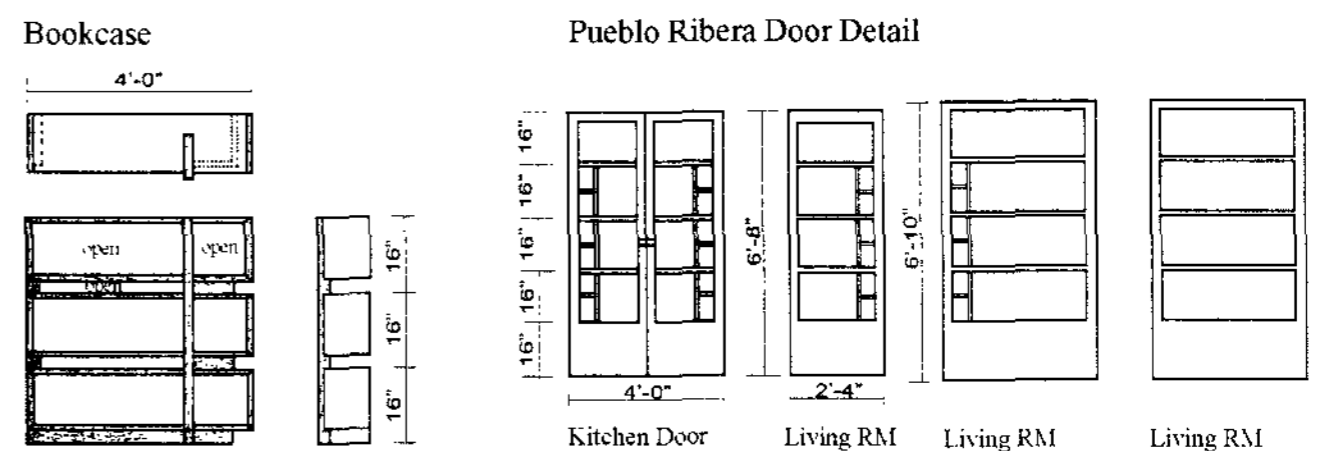


<그림 4> a) 밝고 어두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판테온의 패턴
b) 피터베렌스의 델멘호스터 리놀륨 디자인
c) 쉰들러의 하우주택 주방 리놀륨 디자인

3.2. 인체 비례(Human Proportion)

모든 가구 디자인은 쉰들러 자신이 사용한 모듈 체계에 준하여 계획되어 있다. 쉰들러는 1946년에 Reference Frames in Space라는 글을 발표하였다.⁸⁾ 전술하였듯이 그는 여기서 건축 언어로 자신만의 단위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그 단위는 건축가의 머리 속에 공간의 크기를 상상하면서 정확히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고 동시에 작은 치수까지 쉽게 산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체계는 당시 비례 개념의 챔피언이라 할 수 있는 르 꼬르비제의 모듈라 이론⁹⁾과는 달리 인체에 근거한 전통적 비례개념의 연장선상 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체계에 있어 단위 모듈의 결정이 중요하다. 쉰들러는 48인치(약 122cm)를 기본 단위로 그 배수(multiples)와 세분(subdivisions)을 사용하여 자신의 건축 형태 및 공간에 필요한 모든 치수를 산출한다. 세분에는 1/2, 1/3과 1/4를 사용하였다. 방, 창문, 문, 가구 등 모든 요소의 크기는 이 시스템 하에 통제되며 이는 건물 전체에 질서를 부여하게 되고 전체 척도의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중 1/2(24인치)과 1/3(16인치)은 수직 모듈로 사용되고 이 수직모듈은 문, 창살, 창문, 가구 등의 높이를 제어하게 된다.<그림 5> 가구의 크기도 이 시스템 하에 놓여 있다.¹⁰⁾ 이 크기는 인체 비에 준하는 비례개념에 근거하는데, 즉 신장 6피트를 표준으로 규정하여 의자높이, 문높이, 천정높이, 식탁높이 등을 산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쉰들러의 모듈 체계는 인체 비례라는 전통적 개념에서 유래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Pueblo Ribera Court연립주택의 책장과 창문 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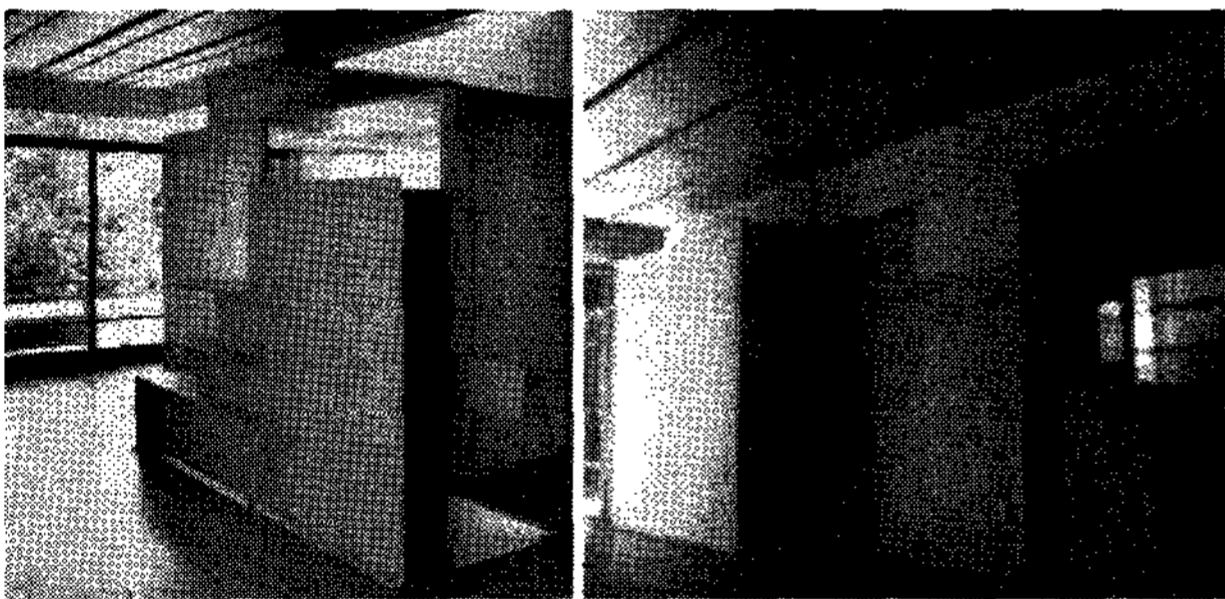
그는 실무적 각고에서 나온 모듈인 표준 문 높이 6피트 8인치(1 2/3 Units, 약 203cm), 표준 방 높이 8피트(2 Units, 약 244cm)를 기준으로 보면 쉰들러의 탁자와 의자는 너무 낮게 디자인된다. 피치 지붕이나 이층 높이의 지붕을 가진 공간에서

8)Schindler, R M., 'Reference Frames in Space', Architect and Engineer, San Francisco 165, 1946, p.10, p.40, pp.44-45.
9)Le Corbusier, The Modulo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10)March, L., "Rudolph M. Schindler ; Sapce Reference Frame, Modular Coordination, and the 'Row'", Nexus Network Journal, 2003, vol. 5 no. 2, pp.48-59, Park, J-H., "Rudolph M. Schindler ; Proportion, Scale, and the 'Row'", Nexus Network Journal, 2003, vol. 5 no. 2, pp.60-72

도 그의 디자인은 마루 바닥에 가깝게 디자인된다. 선들러는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가구의 높이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시대의 탁자 높이는 2피트 2인치(66 cm)를 넘지 않는다. 의자는 16인치(약 41cm) 정도이다"¹¹⁾ 실제 대부분의 선들러의 의자는 16인치의 높이로 되어있고 바닥탁자 높이는 2피트(약 60cm) 정도이고 식탁 높이는 2피트 6인치(약 70cm) 정도이다.

3.3. 재료의 사용(the Use of Material)

대부분의 선들러의 가구들은 값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공사현장에서의 구조체나 거푸집 등의 쓰다 남은 목재를 이용하였다. 이후 그는 대체적으로 값싼 합판이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널려져 있는 붉은 목재를 사용하였다. 특히 합판은 값싸고 가볍고 실용적이며 나무결을 그대로 디자인 요소로 사용할 수 있어 결 위에 도료를 덧칠하는 대신 목재 고유의 색상 및 질감을 유지하도록 저색조의 착색(Stained Color)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원목 느낌에 가까운 마감으로 처리하였다. 부베쉬코 아파트(Bubeshko Apartment)의 붙박이 가구가 그 대표적인 예다.<그림 6>



<그림 6> 부베쉬코 아파트(Bubeshko Apartment)의 붙박이 가구

하지만 선들러가 어떻게 이러한 얇은 합판들을 접합시켰는지에 관해선 그의 도면에도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 얇은 합판을 서로 직각으로 교차시켜 가구를 만들 때, 강하고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가구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선들러는 직각부위를 L-형태의 철물을 사용하거나 얇은 나무 조각을 덧대거나 하여 이런 부위가 쉽게 눈에 보이지 않게 가려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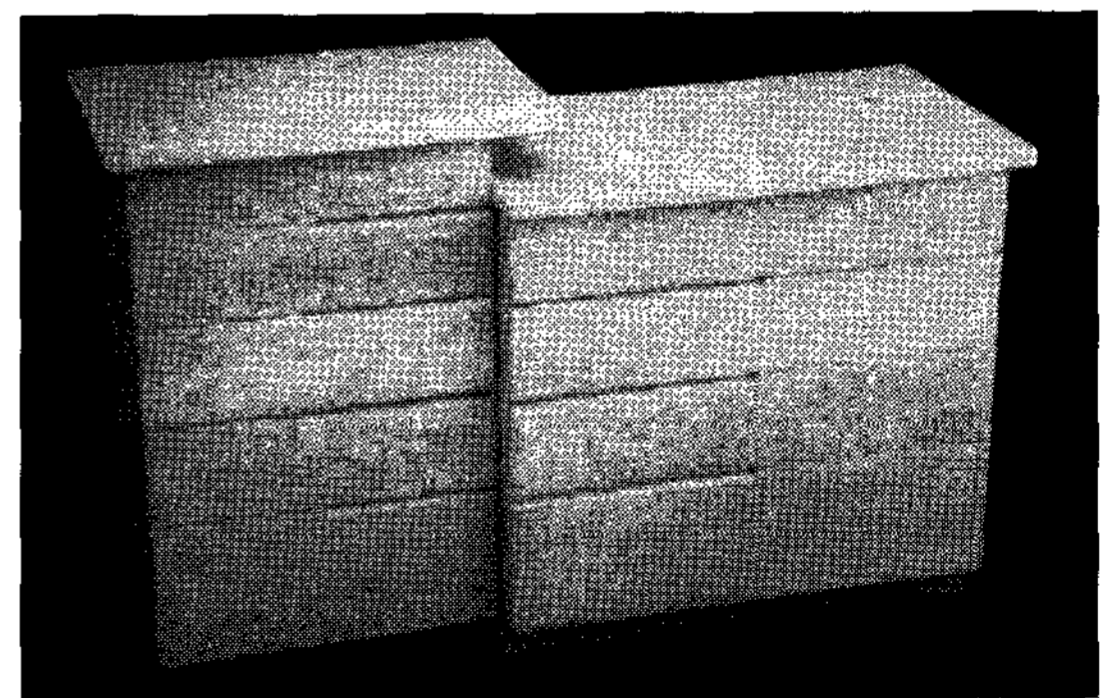
선들러가 이러한 값싼 합판을 쓴 배경에는 물론 공사비의 제약이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실제 그의 클라이언트 대부분이 서민으로 경제성과 실용성이 있는 가구의 디자인을 위하여 값싼 합판 혹은 건축 내장재나 각종 구조용 부재의 쓰다 남은 목재의 사용은 선들러에게는 당연한 결과였다. 따라서 선들러의 합판의자의 대부분은 찰스 임즈(Charles Eames)의 주조합판

(Moulded Plywood)이나 마르셀 브로이어(Breuer, Marcel)의 주물 뜬 합판 의자와는 달리 단순하며 직선적이다.

3.4. 시각적 기법(Visual Technique)

내부 공간에서의 색깔 사용에 관하여 선들러는 벽에 단지 색깔을 칠한다는 개념이나 혹은 화려한 벽지를 사용한 치장의 수준이 아니다. 전체 내부공간의 분위기 속에서 색감의 일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색과 거주자의 정서의 결합을 강조하였다.

당시 바우하우스나 데 스틸 예술가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과학적이고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선들러는 자연 그 자체를 칼라 팔레트로 사용하여 그 속에서 내부 공간의 색감의 방향성을 찾는다.¹²⁾ 이러한 자연 색감은 공간의 사용자에게 안락감과 자연 친화감을 줌으로써 좋은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선들러의 가구들은 화려한 색조나 장식 대신 건물 내부의 구조체나 형태, 그리고 색조에 조화를 이루면서 나뭇결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저색조의 착색(Stained color)을 사용하였다. 또한 내부 공간을 과도한 장식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선들러는 옅은 색을 선호하였다. 이는 자연 특히나 바위나 토양에서의 저색조 갈색 등을 영속적인 색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선들러는 지역의 환경에 맞는 색깔인 자연색을 선택, 조합하는 것도 디자이너의 중요한 임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앞서 언급한 리트벨트와는 대조를 이룬다. 리트벨트는 나무토막과 원목 판의 가구에 원색을 칠해 추상적인 접근방식으로 디자인 한다.



<그림 7> 이나야(Inaya) 주탁 (1946)을 위한 옷장

대부분 가구들의 손잡이 등에는 반짝이는 철물 대신 목재에 직접 홈을 파 그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옷장, 문, 서랍 장 등에 붙어있는 반짝이는 철물들의 번들거림이 내부 공간에서 생활하는 거주자의 시야를 현혹하고 공간을 음미하는 방해요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들러의 가구에

11)R. M. Schindler. "Care of the Body - About Furniture" Los Angeles Times, April 18, 1926, pp.26-27.

12)Schindler, R. M., Answer to questionnaire from the school of Architectur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DC, UCSB, 1949. 이 글을 출판되어지지 않았고 선들러 자료실에 원본이 소장되어 있다.

선 철제 손잡이나 불필요한 장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선들러는 기본적으로 반사 재료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벽이나 가구 등에서 광택이 나는 표면은 재료의 자연적 질감을 훼손하며 나아가 실내 공간이 인공화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광택이 나는 재료 대신 빛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특히 원목에 옅은 착색 덧칠을 선호하였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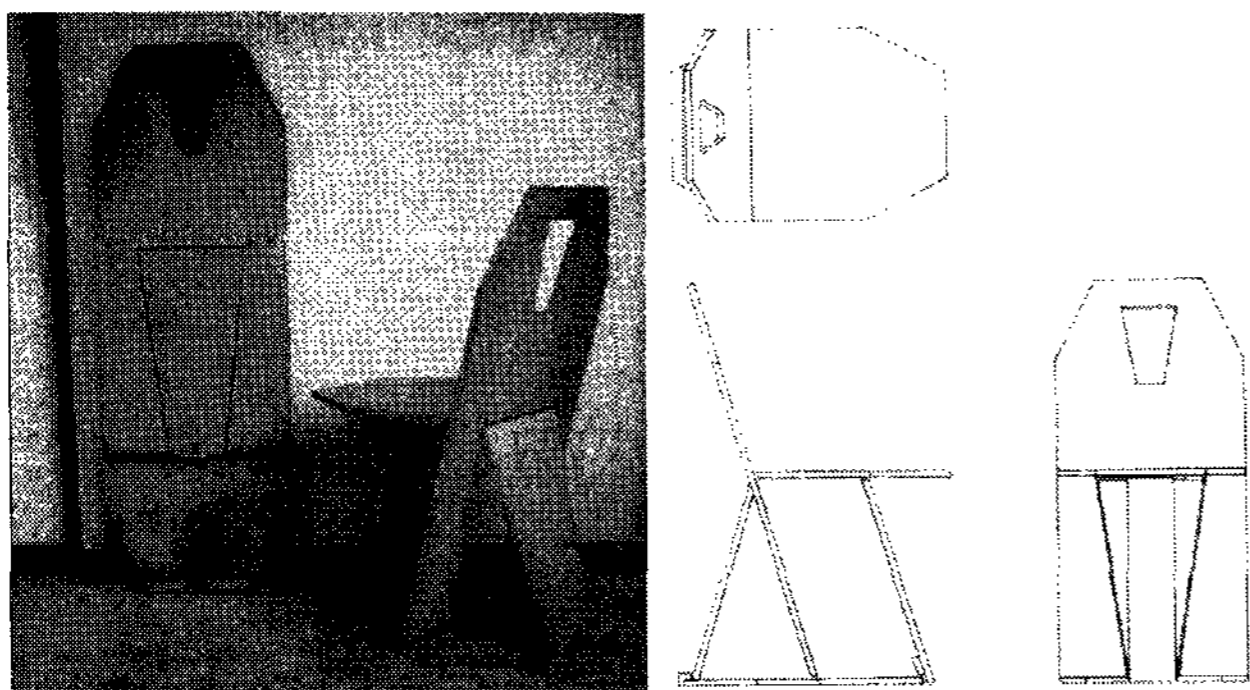
4. 선들러 가구 디자인의 기능적 특징

가구 디자인의 기능적 특징에 따라 만들어진 가구의 유형을 선들러는 이동 가능한 가구(Movable Furniture), 붙박이 가구(Built-in Furniture), 유닛 가구(Unit Furniture)로 정의하고 있다.

4.1. 이동 가능한 가구(Movable Furniture)

선들러의 공간 개념에서 가구는 내부 공간의 명확성과 확장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당장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눈에 띄지 않게 치워야 한다. 특히 의자의 경우는 부적절한 요소로 간주되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접어 쉽게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 가변성을 고려하여 의자는 이동이 쉬운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각 가정의 불충분한 수납공간을 고려하여 보관하기 쉬운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념에 맞게 디자인된 두 가지의 예가 있다. 하나는 고돈 주택의 접이의자(folding chair)이고 다른 하나는 1938년에 디자인된 사우스홀(Southhall Studio) 작업실의 등받이 없는 의자와 식탁이다. 접이의자를 살펴보면, 이 의자는 폼을 댄 간이의자가 되고 접었을 때 한 장의 평평한 합판이 되어 기존의 가구들이 차지하는 수납공간을 대폭적으로 절약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그림 8>



<그림 8> 고돈 주택(Gordon House)의 접이의자의 도면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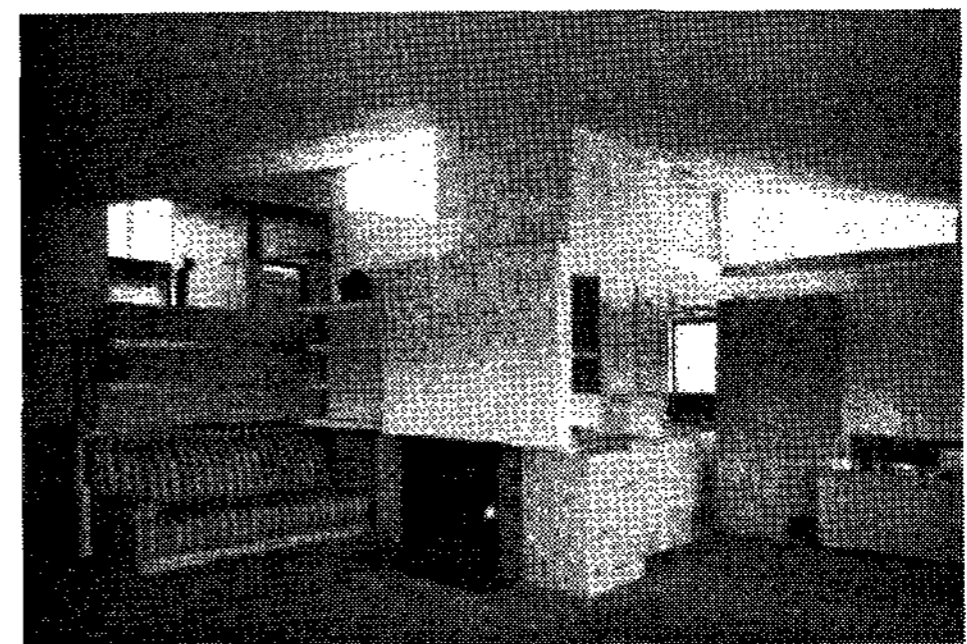
4.2. 붙박이 가구(Built-in Furniture)

실내공간의 심미적, 경제적 그리고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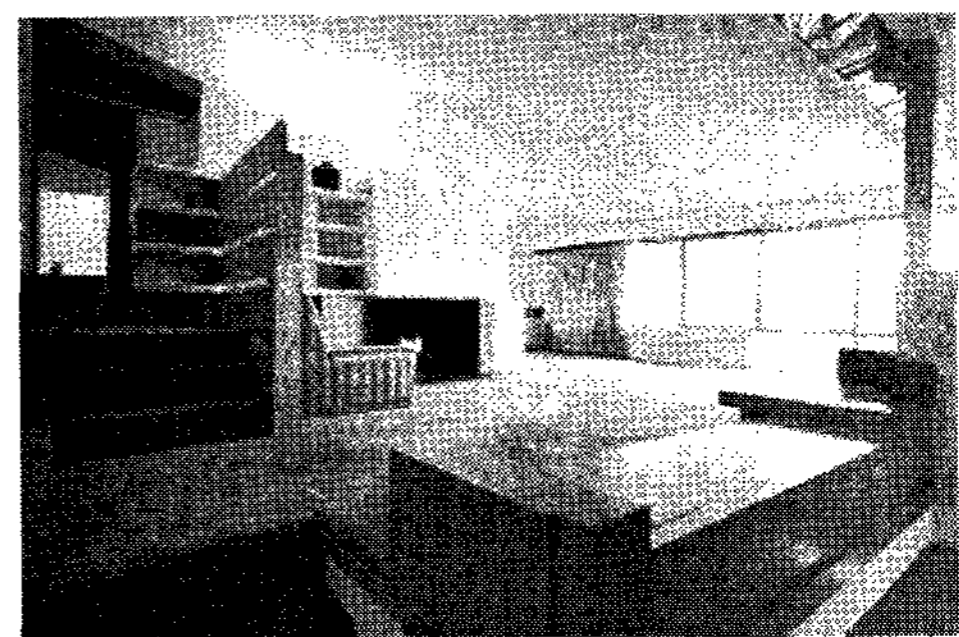
선들러는 다양한 모양의 붙박이 가구들을 디자인하였는데 그의 작품 속에 보여지는 붙박이 가구는 건축 요소와 일체화된 조형적 구조물로서 공간의 쓰임을 향상시켜 줄 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선들러식 공간 형태로 부여되고 있다.

선들러에게 있어 붙박이 가구는 내부 공간의 경제적인 공간 활용을 위한 용도일 뿐 아니라 건축 형태와 어우러져 내부 공간에 하나의 동질감을 준다. 붙박이 가구로는 캐비닛, 의자, 침대 등의 가구가 포함된다. 이들 가구는 한편으로는 이동이 가능한 접이의자(folding chair)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선들러에게 있어 가구 디자인은 필요 불가결한 요소로 건물의 내·외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때로는 건물이 어디서 시작되고 가구가 어디서 끝나는지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서로 엮여져 있다. 특히 붙박이 가구들은 건축 공간 및 그 형태와 융화되어 하나의 동질화된 공간을 창출한다. 선들러의 주택에서 붙박이장은 주로 방안의 벽에 설치되나, 어디에 붙박이장이 있는지 찾기가 힘들다.<그림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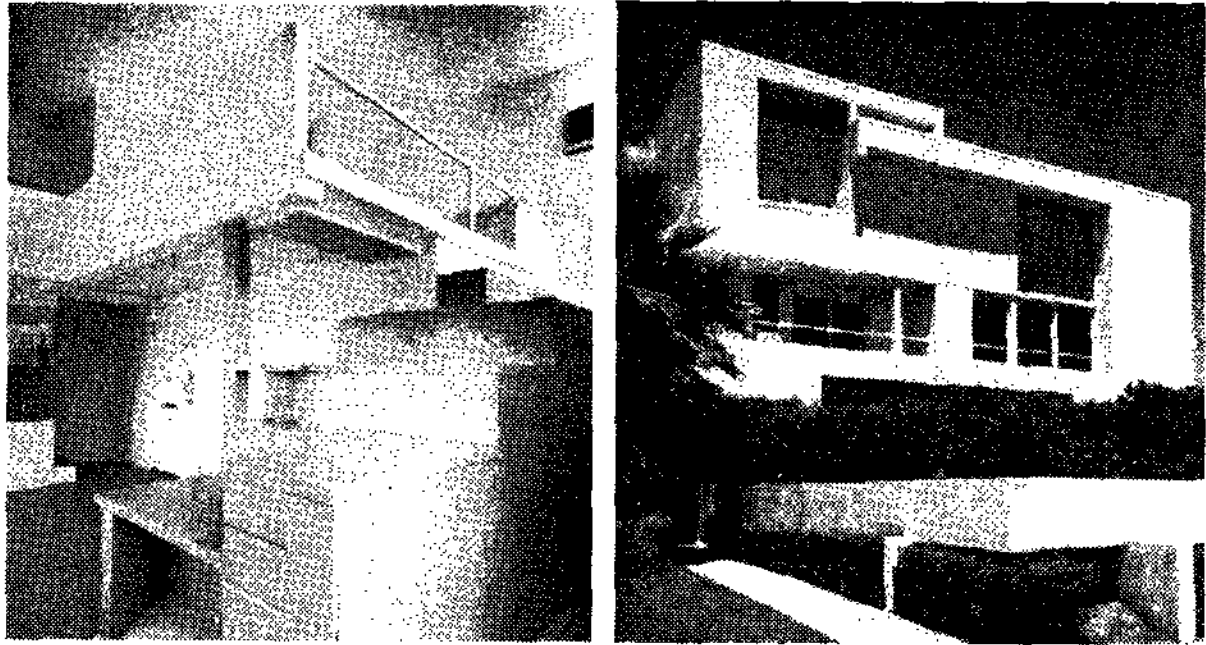


<그림 9> 워커 주택 1 (Walker House 1)



<그림 10> 워커 주택 2 (Walker House 2)

선들러의 공간은 각각의 독립된 공간들의 집합체로서가 아니라 모든 공간이 연속성을 이룬 하나의 유동체로 이해된다. 따라서 공간의 각 구성 요소들, 특히 한 건축물의 내부 공간에서의 가구 디자인들은, 전체 유기체의 한 일부로서 고려되는 것이다.<그림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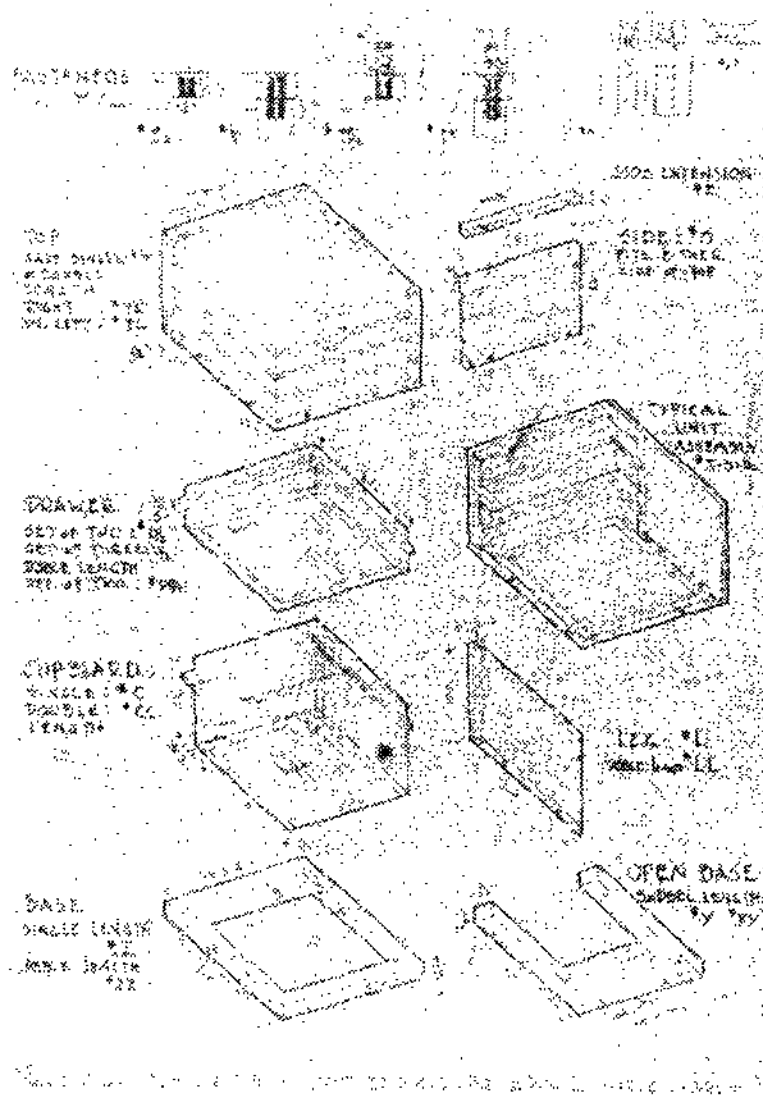
<그림 11> Mackey Duplex의 내부

<그림 12> Mackey Duplex의 외부

4.3. 유닛 가구(Unit Furniture)

1930년대 초 선들러는 유닛 가구라는 모듈라 개념의 가구 디자인을 개발한다. 이는 자신의 디자인 뿐 아니라 일반 건물에도 쉽게 어울릴 수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가구 체계이다. 여기에는 서랍장, 의자, 소파, 탁자 등이 한 세트의 서로 다른 가구들이 서로 다른 형태로 결합되어 필요에 따른 가구 세트를 만든다는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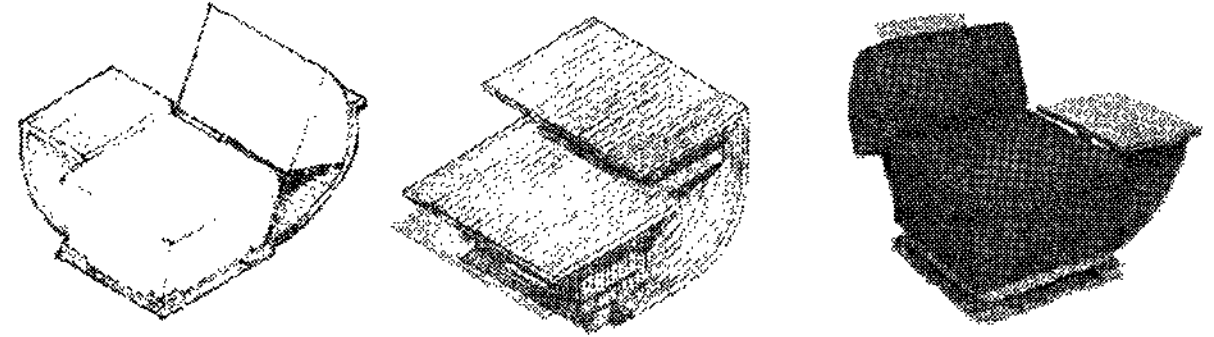
특히 유닛 서랍장은 특이할 만한데 여러 겹의 단위 서랍이 열리거나 닫힌 형태로 다양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디자인된다. 그 용도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각 부재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사용부재의 종류를 최소화하고 형태를 단순화하였다. 개개의 부재는 크기가 작고 가볍게 디자인되었고 운반이 쉽고 나사를 이용하여 부재들을 비교적 간단하고 손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 서랍장의 기본 유닛은 1피트 9인치(약 53cm) 단위로 구성된다.<그림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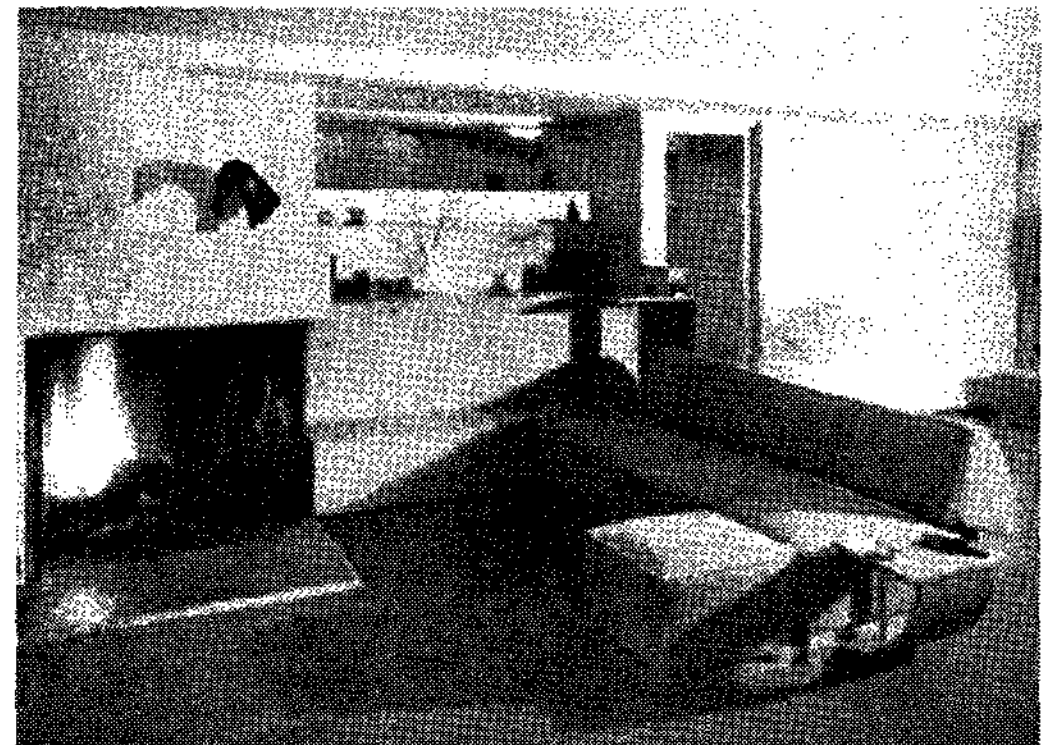
<그림 13> 선들러의 유닛서랍장, 1933

박스 형태의 의자도 쿠션 등받이가 달리거나 곡선 합판으로 만들어진 사이드 테이블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두 개의 단위 의자가 개별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단위 의자가 "L"자나

"I"자로 붙여져 긴 소파를 만들기도 한다. 공간의 크기나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수납공간과 의자의 치수를 조정할 수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바꾸어 짤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그림 14, 15>



<그림 14> 유닛 가구 의자 디자인



<그림 15> 반 패턴(Elizabeth van Pattern) 주택 (1934-45)에서의 "L"자형 단위 의자 배치

이러한 접근방식은 선들러가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공간의 가변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이러한 단위 가구로 인해 내부 공간은 독립적이면서도 일체화 된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변성을 확보하게 되고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가구와 공간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때 이동 공간의 크기에 따른 거주자만의 취향에 따른 개성적인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 선들러의 이러한 가변성 원리는 집합주거인 선들러 쉼터(Schindler Shelters)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이 집합주거에서 선들러는 여러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네 가지 유형의 단위 아파트를 제안하였다. 이 원리를 바탕으로 무수히 많은 변형 가능한 아파트의 유형이 양산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¹³⁾

이러한 선들러의 단위 가구 개념은 많은 면에서 초기 이동 가구 개념과는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단위 가구들은 필요에 따라 쉽게 움직일 수 있게 가볍거나, 시각적으로 단순한 디자인도 아니다. 선들러는 이 단위 가구들이 붙박이 가구들과 어우러져 변화하는 내부 공간에 맞추어 재배열될 수 있는 가구 개

13)이 주거의 원리 및 역사적 측면은 아래 두 글에서 자세히 논하고 있다. Park, Jin-Ho, Symmetry and Subsymmetry as Characteristics of Form-Making: The Schindler Shelter Project of 1933-42,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21 No.1, pp.24-37, 2004 그리고 Park, Jin-Ho, An Integral Approach to Design Strategies and Construction Systems: R.M. Schindler's "Schindler Shelters",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 58 No 2, 2004, pp.29-38.

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쇤들러는 단위 가구 디자인을 상업화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다만 그의 클라이언트를 위한 소량의 가구들만을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개념은 1940년대에 나타난 조립식 가구 그리고 찰스 임즈(Charles Eames)의 교체 가능한 서랍장 등의 디자인이 나오기 훨씬 전의 것들로 쇤들러의 선구자적인 식견을 엿볼 수 있다.

5. 결론

본 논문은 쇤들러의 건축언어를 통해서 그의 가구 디자인 개념, 특성 그리고 조형 원리 등을 형태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적인 측면으로 첫째, 쇤들러 디자인의 기하학적 구성은 추상적이고 지나치리만큼 단순하나 이들 디자인이 현대생활에 꼭 필요한 기능성 및 가변성 등을 충분히 고려했음을 알 수 있다. 쇤들러는 자신의 다양한 연구와 실험적인 건축 디자인에서 얻은 건축언어를 가구 디자인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자신의 독특한 건축 공간 및 형태에 부합하는 가구를 디자인하게 되었다.

둘째, 쇤들러의 가구의 크기 체계는 건물의 비례 체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가구의 크기 산정은 인체공학적 측면이 고려된 비례 체계에 기초한다. 이러한 비례 체계 뿐 아니라 유닛 가구 시스템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쇤들러는 당대 선구자적인 인물로 간주된다.

셋째, 재료에 있어 쇤들러는 당시 일상적인 플라스틱, 주형 합판(molded plywood), 알루미늄 그리고 철재와 같은 비싼 재료 대신 대부분 목재를 고집하였다. 당시 그 지역에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재료인 친숙한 목재를 사용하여 건물 내부의 가구와 소품들에 통일감을 주며 건축물의 공간 형태와 떼어 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넷째, 인체 비례뿐 아니라 가구를 사용하는 거주자를 충분히 고려한 색조나 디테일의 시각적 기법을 발전시킴으로 인간의 정서를 중시하였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가구 유형이 모두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동 가능한 가구나 단위 가구들이 붙박이 가구들과 어우러져 변화하는 유닛 가구, 이 모두가 내부 공간에 맞추어 재배열되며 건축 공간 및 그 형태와 융화되어 하나의 동질화된 공간을 창출한다.

본 논문에서 보듯이 쇤들러는 자신만의 조형 언어, 원리 및 방법론을 이용하여 무수히 많은 가구를 디자인하였다. 쇤들러는 토탈 디자인을 추구하는 건축가였다. 건축가로서 그리고 작

금의 실내 및 가구 디자이너로서, 디테일과 마감 재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부 공간 형태를 자신의 건축언어로 꼼꼼하고 세밀한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쇤들러는 건축의 디테일 속에 숨겨진 자신의 기술적 재치와 세심함을 가구 디자인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이 논문을 토대로 보다 많은 쇤들러 가구의 조사 및 연구가 확장되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1. Gebhard, D. *Schindler*, San Francisco, William Stout 1997
2. Loos, A., "Ornament and Crime", in Reyner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Butterworth Architecture, 1992
3. March, L. and Sheine, J., *RM Schindler-composition and construction*, Academy Edition, London, 1993
4. Noever, P., *MAK Center for Art and Architecture: R. M. Schindler*, Prestel Verlag, Munich, 1995
5. Noever, P., *Rudolph M Schindler*, New York, Prestel, 1995
6. Sarnitz, A., *R. M. Schindler-Architect*, New York, Rizzoli, 1986
7. Semper, G.,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8. Sheine J., *R. M. Schindler : Works and Projects*, Gustavo Gili, Barcelona, 1998
9. Steele, J. *R.M. Schindler*, Berlin, Taschen, 1999
10. March, L., "Rudolph M. Schindler : Sapce Reference Frame, Modular Coordination, and the 'Row'", *Nexus Network Journal*, 2003, vol. 5 no. 2
11. Park, Jin-Ho, Subsymmetry Analysis of Architectural Design: Some Examples, *Environment and Planning B - Planning & Design*, Vol 27 No 1, 2000
12. Park, Jin-Ho, Rudolph M. Schindler : Proportion, Scale and the 'Row', *Nexus Network Journal*, Vol. 5, No. 2, 2003
13. Park Jin-Ho, Symmetry and Subsymmetry as Characteristics of Form-Making : The Schindler Shelter Project of 1933-42, *Journal of Architectural and Planning Research*, Vol. 21. No.1, 2004
14. Park, Jin-Ho, An Integral Approach to Design Strategies and Construction Systems: R. M. Schindler's "Schindler Shelters", *Journal of Architectural Education*, Vol. 58. No. 2, 2004
15. Schindler, R. M., Visual Technique, Los Angeles, R. M. Schindler Papers. The Architectural Drawing Collection, The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952(Manuscript).
16. Schindler, R. M., Reference Frames in Space, *Architect and Engineer*, San Francisco 165, 1946
17. Schindler, R. M., Notes Modern Architecture, Los Angeles, R. M. Schindler Papers. The Architectural Drawing Collection, The University Art Museum,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1944 (Manuscript).
18. Schindler, R. M., 'Furniture and the Modern Houses : A Theory of Interior Design', Parts 1, 2. *Architect and Engineer* 123 (December 1935) : 124(March 1936)
19. Schindler, R. M., "Care of the Body-About Furniture" *Los Angeles Times*, April 18, 1926

<접수 : 2008. 2. 29>